

종합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1위 화순군 비결은?

토지 무상 제공·3억 포상금 기업 오면 끝까지 책임졌다

광양시·목포시·함평군도 상위 15위 포함

화순군은 최근 군에 '인·허가부서'를 새롭게 편성하고 직원 18명을 배치,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일 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실한 서비스를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녹십자 백신공장 유치를 위해 77억원 상당의 부지 2만평을 5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빌려주고 한 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가 부지 1만평을 마련하는데 4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또 군내 14개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61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가 하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구축에도 힘을 기울였다.

화순군의 이같은 기업유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8일 최근 3년 내에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 2340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화순군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6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순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유치 외에도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1인 1기업을 담당하고 정기적으

목포시(64.7점·8위), 함평군(62.1점·13위) 등도 상위 15위에 포함됐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수도권 접근성 등이 불리한 도내 지자체들의 경

기업유치서비스 우수상위15개 지자체

Table with 2 columns: 순위, 지자체, 만족도. Lists 15 municipalities and their satisfaction scores.

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만큼 기업 유치·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마인드로 인해 지난해 2000개가 넘는 기업 유치가 이어졌다"면서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종합만족도 상위 15개 지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국비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기업 몰려온다

道, 美 솔포코스 등 국내외 8개사와 350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미국 솔포코스 등 국내외 8개 기업과 3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솔포코스는 지난해 나주 문평산업단지 입주한 한국 검사정공사와 함께 70억원을 투자해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형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게 된다.

또 미국 유지이(UGE)는 나주 문평산단의 알에스넷과 함께 130억원을 투자해 중소형 풍력발전기와 풍력 및

태양광 결합형 가로등을 생산할 방침이다.

한국 검사정공사와 솔포코스의 집 광형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공장 투자와 연계해 수도권에서 나주로 집단이전하게 될 화진, 네오레즈 테크놀로지, 미르텍 등은 총 150억원을 투자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개방형 직위 공모

복지여성국장·감사관 등

전남도는 8일, 복지여성국장 및 감사관,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장, 경제통상과 농수산물 수출 담당 등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감사관(3년)을 빼고 모두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으며, 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어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다.

민간인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경력제 공무원은 그대로 신분이 유지된다.

응시일자는 오는 20~22일 전남도청 인력관리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해야 한다. 문의는 061-286-3443.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국토부, 조기 추진 긍정 검토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지역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해 긍정 검토할 의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정한 한나라당 의원이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5년 이전 착수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8일 밝혔다. 이날 말까지 수립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전선이 '의미 있는 철도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개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2020년 이후 검토대상 사업으로 밀려나면서 지역 경제에 등의 반발을 빚어온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이정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

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경전선이 물동량 증가와 납해안 신 벨트 개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 삼랑진에서 순천까지는 복선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순천 구간만 단선인 상태로 방치돼 신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철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대중 휘호 사상 최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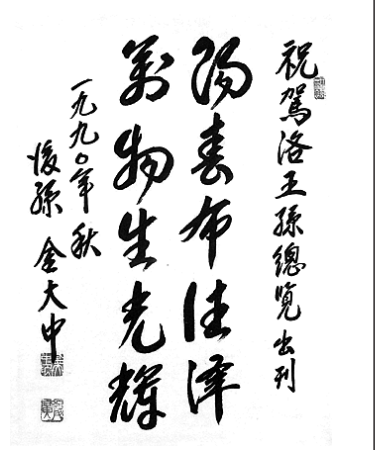
'에이옥션' 2000만원 낙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가 광주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에서 20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전문업체인 A-옥션은 "지난 7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 제12회 오프라인 경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가 이 같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휘호는 김 전 대통령이 1990년에 쓴 작품이며, "따뜻한 봄기운이 은덕과 해택을 베풀어 모든 생물이 화려하게 빛난다"(陽春布德澤 萬物生光輝·양춘포덕택 만물생광휘·사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함께 출품된 이희호 여사의 휘호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도 150만원에 시작, 360만원에



팔렸다.

에이옥션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휘호는 지난해에도 950만원과 550만원에 낙찰됐었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5일 티캐홀 고 리영희 교수의 운구행렬이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들어오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故 리영희 교수 광주품에 안기다

어제 5·18 민주묘지 안장

고(故) 리영희 교수가 8일 자신의 유언대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실천하는 지식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 500여명(경찰 추산)의 '동지'들이 운구차 뒤를 따랐다.

1980년 5·18 당시 전국 소요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고 리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연행, 석방되기까지 50여 일간 갖은 고초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7월30일 5·18 유공자로 인정됐다. 리 교수는 이 같은 인연으로 가족들에게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고, 민주성지인 광주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줬다. 8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운구는 1980년 5월의 격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등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지나 묘역에 이르렀으며, 이날 오후 4시 5·18 민주묘지 7묘역에 유골이 안장됐다. 장례식을 주최한 '고 리영희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오종철 상임 고문은 조사에서 "프랑스에는 에밀 졸라, 중국에는 노신, 우리나라에는 당신이 계셨다"며 "평소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양심이 돼 광주의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시작으로 강연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헌화를 했고,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뒤따라 헌화하며 명복을 빌었다.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pa) by Kim Jong-du. Includes a cartoon illustration and text asking for feedback.

지역 인사 자원봉사 활동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

광주·전남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노성만)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 광주·전남 지도층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2010 전남도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봉사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나눔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도층 인사 150여명이 서약을 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채권매각 공고' (Debt Collection Notice) by Gwangju Industrial Bank. Includes a table of debtors and terms.

Advertisement for '부동산 매각공고' (Real Estate Sale Notice) for a large apartment complex. Includes photos and details.

Advertisement for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2010 New Gold Young-i DVD Karaoke). Includes images of the DVD player and microphone.

Advertisement for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Successful man's wrist always has JAKAL). Includes images of JAKAL watches.